

부모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지은** · 임정하***

초 록

본 연구는 부모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고등학생 368명(남 183명, 여 18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다집단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수용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과 학교적응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자기를 더 많이 수용하고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수용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기수용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수용적인 태도로 청소년 자녀의 존재를 존중해주면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수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는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부모가 자녀를 수용해주는 것과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청소년, 부모수용, 자기수용, 학교적응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제1저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jhlim@korea.ac.kr

I. 서 론

학교는 청소년에게 있어 친구나 교사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사회적 규칙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면서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곳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물리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곽미정, 김영미, 2013; 김의철, 박영신, 2008;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지적·기술적 역량을 갖추게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응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청소년에게 학교적응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강유진, 문재우, 2005; 김경은, 최은희, 2010; Nota, Soresi, Ferrari & Wehmeyer, 2011).

하지만 오늘날의 학교에서는 경쟁을 강조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열등감, 좌절,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통계청(2012)의 조사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부적응이 고등학생 학업중단의 가장 큰 사유로 나타나기도 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가출, 학교폭력, 비행 등 사회적 차원의 문제까지로도 이어진다(이경상, 이순래, 박철현, 2007).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습동기나 학습전략과 같은 학업 관련 변인(김명희, 하정희, 차경희, 2006; 조한익, 2012), 친구나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 관련 변인(김영춘, 정민숙, 2012; 임수경, 이형실, 2007; Roorda, Koomen, Spilt & Oort, 2011),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들이 다루어졌다(이현림, 천미숙, 2003; 좌현숙, 2012). 또한 부모 관련 변인은 대부분의 청소년 학교적응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성희, 임성택, 2009;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DuBois, Eitel & Felner, 1994). 부모는 한 개인의 일차적인 사회적·정서적 기반으로서 사회화를 담당하고 개인의 발달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는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삶의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율성이 증가하여 달라

진 부모-자녀 관계를 경험하고, 부모와 갈등을 겪는 등 부모-자녀 관계에서 많은 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Santrock,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변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본주의 부모교육이론에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의 감정이나 생각을 포함한 존재 자체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조한다(정옥분, 정순화, 2008). 부모의 수용이란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모의 모든 신체적·언어적 양육태도를 포함한다(Brock, Sarason, Sanghvi & Gurung, 1998). 즉,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수용은 일관적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ohner, Khaleque & Courmoyer, 2005; Turner, Sarason & Sarason, 2001).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수용은 자녀의 내재화·외현화문제를 낮추는 데 기여하며(이정운, 최수미, 2011; 정문자, 여종일, 2010),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켜주고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준석, 류진아, 2012). 특히 부모의 지지와 수용은 학교생활 적응행동 및 학업동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문은식, 2002; 송희원, 최성열, 2012) 부모로부터 수용받는 경험과 자녀의 긍정적인 학교생활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의 수용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이 때 자신에 대해 건강 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박아청, 2008).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자기수용이 있다. 자기수용이란 자신이 바르고 유능하게 행동하는지와 관계없이,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지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Ellis, 1977). 성취 압력이 과다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가받는 것이 일상이 된 청소년들에게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한다고 해도 한 인간이 전적으로 나쁘거나 무가치한 존재라고 할 수는 없다(Ellis & MacLaren, 2007).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수행에서 부족함을 발견한다고 해도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길 줄 안다는 것은 심리적 강점

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부정적 정서를 잘 나타내지 않으며(Ellis & Harper, 1997) 자신에 대한 평가에 객관적이며 부정적인 평가에 덜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이기은, 조유진, 2009; Chamberlain & Hagg, 2001a).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김광웅, 2007) 타인을 잘 수용하여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임전옥, 장성숙, 2012). 이처럼 자기수용이 적응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이 자기수용을 잘 할수록 학교적응도 잘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자기수용과 같은 자신에 대한 태도나 관점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박아청, 2001).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느끼는 애착의 강도는 청소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었으며(Cotterell, 1992), 부모의 지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lunkett, Henry, Robinson, Behnke & Falcon III, 2007).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자율적·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함이 밝혀졌다(박아청, 2001; 이주희, 이춘재,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수용 수준은 부모로부터 수용 받는 경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수용은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김사라형선, 조한익, 2005), 부모 공감과 청소년의 행복과의 관계(김복인, 이인수, 2013)에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부모 및 자신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지닌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화 요구에 대한 내면화정도가 높아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안진 외, 2004), 부모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고 부정적 양육행동은 덜 할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이는 다시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였다(변해진, 2013). 부모 관련 변인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녀의 자기(self) 관련 변인이 매개하는 경험적 연구들로 미루어보아, 자기수용은 부모수용과 학교적응 사이에서도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성별에 따른 부모수용, 자기수용과 학교적응의 차이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라고 지각한다고 하였다(유안진 외, 2004). 그

러나 이와 반대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임정화, 진종설, 2012). 또한 어머니의 온정과 수용(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김향은, 2002) 및 부모의 지지(Plunkett et al., 2007)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임수경, 이형실, 2007)에 대한 지각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자기수용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추미례, 이영순, 2014). 하지만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여자청소년의 경우에 특히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정옥분, 2015) 자기수용에서의 성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의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반면(임수경, 이형실, 2007; 임정화, 진종설, 2012), 여학생들이 학교규칙과 교우관계에서 남학생들보다 높은 적응 수준을, 남학생들이 교사관계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적응 수준을 보여 하위요인별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강금주, 윤숙영, 신현숙, 2012).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수용, 자기수용과 학교적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수용, 자기수용, 학교적응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재탐색해 보고, 매개모형에서도 성별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수용은 청소년 자녀의 자기수용과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수용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수용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수용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동안 부모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였으나(고성희, 임성택, 2009; 유안진 외, 2004; 임수경, 이형실, 2007) 어떤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 자기수용과 학교적응 수준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살펴본 뒤,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 자녀의 자기수용 및 학교적응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자기수용이 부모의 수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작용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 연구결과가 부모

들에게 바람직한 양육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는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지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수용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수용, 자기수용, 학교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자기수용은 부모수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수용, 자기수용,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7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으며, 부실 기재되거나 미완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368부(92%)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183명(49.7%), 여학생이 185명(50.3%)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6.47세($SD=1.47$)였다. 학년분포는 고등학교 2학년 157명(42.7%), 중학교 3학년 97명(26.4%), 중학교 1학년 53명(14.4%), 고등학교 1학년 32명(8.7%), 중학교 2학년 29명(7.9%) 순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부모수용 척도, 자기수용 척도, 학교적응 척도 세 가지이다.

1) 부모수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Brock과 동료들(1998)이 개발한 PAS(Perceived Accepta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 수용 10문항, 모 수용 10문항, 가족 수용 12문항, 친구 수용 12문항, 총 44문항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PAS 가운데 부 수용 문항과 모 수용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수용은 자기의 특정 태도나 행동과 관계없이 부모가 자신을 가치롭게 여겨주는 것에 대한 자녀의 인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Brock et al., 1998). 이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매우 동의한다”를 5점으로 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Brock과 동료들(1998)은 척도 개발 시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입증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부 수용 .93, 모 수용 .94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부 수용 .86, 모 수용 .86, 전체 .89로 나타났다.

2) 자기수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과 Hagg(2001b)가 개발한 USAQ(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를 김사라형선(2005)이 타당화 하고, 이를 서은경(201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총 12문항으로, 실패 혹은 비난의 경험, 타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한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12~8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은경(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3) 학교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이규미와 김명식(2008)이 개발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공부 8문항, 학교친구 10문항, 학교

교사 10문항, 학교생활 10문항, 총 38문항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공부는 학업유능감과 학업가치를 측정하고, 학교친구는 친구관계와 상호협조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학교교사는 교사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을 측정하며, 학교생활은 학교의 질서나 규칙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지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당시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Cronbach's α 값은 전체 .93, 학교공부 .83, 학교친구 .87, 학교교사 .90, 학교생활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전체 .95, 학교공부 .84, 학교친구 .90, 학교교사 .91, 학교생활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조사에 앞서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이해도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체크하였다. 본조사는 2014년 7월에 중·고등학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에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고, 그 이후에 본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질문지 실시 방법, 소요시간, 주의사항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질문지 작성은 교사의 지도하에 수업시간 전후를 이용하여 교실에서 이루어졌고, 20~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질문지는 작성 완료 후 모두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368부(92.0%)를 실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청소

년의 부모수용, 자기수용, 학교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수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하고, 남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χ^2 값과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LI, CFI, RMSEA는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하며 모형의 간명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우종필, 2012; 홍세희, 2000). TLI와 CFI는 그 값이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고 해석하며(Hu & Bentler, 1999),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수용과 자기수용 및 학교적응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수용, 자기수용과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부모수용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수용의 경우에는 남학생 집단의 평균($M=4.20$, $SD=.80$)이 여학생 집단의 평균($M=3.98$, $SD=.87$)보다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자기수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1$, $p<.05$). 즉,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자신의 수행수준이나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자기를 더 많이 수용하였다. 그리고 학교적응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에서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 전체와 학교 공부, 학교교사, 학교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을 유익하게 여기고 높은 학업유능감을 가지고 있으며($t=2.92$, $p<.01$), 교사를 친밀하게 느끼고($t=2.71$, $p<.01$), 학교생활에 만족하며($t=2.70$, $p<.01$),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0$, $p<.01$).

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수용, 자기수용과 학교적응의 평균, 표준편차와 독립표본 t 검증 (N=368)

	남 (n=183)	여 (n=185)	t
	M(SD)	M(SD)	
부 수용	3.51 (.64)	3.61 (.74)	-1.42
모 수용	3.64 (.66)	3.67 (.71)	-.46
전체	3.57 (.53)	3.64 (.65)	-1.09
자기수용	4.20 (.80)	3.98 (.87)	2.51*
학교공부	2.74 (.62)	2.56 (.56)	2.92**
학교친구	3.18 (.60)	3.16 (.59)	.33
학교교사	2.80 (.66)	2.61 (.70)	2.71**
학교생활	3.03 (.56)	2.87 (.55)	2.70**
전체	2.94 (.49)	2.80 (.49)	2.70**

* $p < .05$. ** $p < .01$.

2. 부모수용과 자기수용 및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기에 앞서 부모수용, 자기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부모수용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37, p < .001$), 자기수용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6, p < .001$). 또한 자기수용은 청소년 학교적응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4, p < .001$).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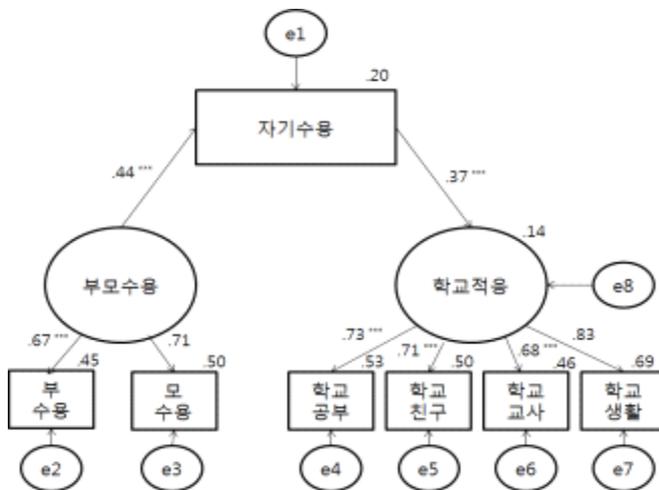
부모수용, 자기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

		학교적응					자기수용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전체	
부모 수용	부	.26***	.28***	.19***	.22***	.29***	.30***
	모	.29***	.24***	.30***	.29***	.35***	.31***
	전체	.32***	.30***	.29***	.29***	.37***	.36***
자기수용		.28***	.22***	.27***	.31***	.34***	-

*** $p < .001$.

1) 기본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자기수용이 부모수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기본모형을 추정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부모수용에서 학교적응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청소년의 자기수용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2 검증을 사용해 기본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기본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기본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 은 45.58($p < .001$)이었고, RMSEA는 .083으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가 .928, CFI가 .955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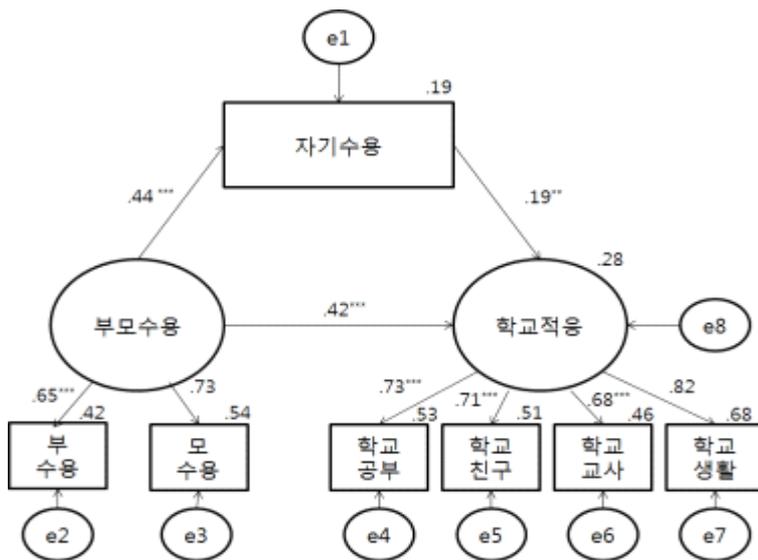
그림 1. 기본모형: 부모수용과 자기수용 및 학교적응의 완전매개모형

2) 연구모형 검증

부모수용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기본모형에 추가하여 그림 2와 같이 자기수용을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수용→자기수용’, ‘자기수용→학교적응’과 ‘부모수용→학교적응’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수용→자기수용’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44($p<.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수용이 청소년의 자기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수용→학교적응’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9($p<.01$)로 나타났고, 이것은 자기수용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수용→학교적응’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42($p<.001$)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부모수용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 은 15.49($p=.216$), TLI가 .992, CFI가 .995, RMSEA는 .028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모형 간의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χ^2 값의 차이가 임계값인 3.84보다 크면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고 3.84보다 작으면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한다(김계수, 2006). 본 연구에서 기본모형과 연구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30.09로 임계값인 3.84보다 크므로 부분매개모형을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살펴봤을 때,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기본모형보다 모든 지수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수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p<.01$. *** $p<.001$.

그림 2. 연구모형: 부모수용과 자기수용 및 학교적응의 부분매개모형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부모수용 → 자기수용	.74	.44	.12	5.94 ^{***}
자기수용 → 학교적응	.10	.19	.04	2.97 ^{**}
부모수용 → 학교적응	.39	.42	.08	4.73 ^{***}
부모수용 → 모 수용	1.00	.73		
부모수용 → 부 수용	.90	.65	.13	7.03 ^{***}
학교적응 → 학교생활	1.00	.82		
학교적응 → 학교교사	1.00	.68	.08	12.74 ^{***}
학교적응 → 학교친구	.92	.71	.07	13.37 ^{***}
학교적응 → 학교공부	.94	.73	.07	13.73 ^{***}

** $p < .01$. *** $p < .001$.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15.49	12	.216	.992	.995	.028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서 부모수용이 자기수용을 설명하는 변량은 19%, 부모수용과 자기수용이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량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직접효과는 A라는 변수가 C라는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고, 간접효과는 A변수가 B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C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A→B'의 경로계수와 'B→C'의 경로계수를 곱하면 간접효과가 되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은 총효과가 된다(김대업, 2008). 이에 따른 부모수용, 자기수용 및 학교적응 간의 효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수용에서 자기수용으로 가는 경

로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44이다. 이것은 부모수용은 자기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수용해줄수록 청소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수용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19이다. 이는 자기수용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학교적응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수용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42, 간접효과는 .08, 총효과는 .50이다. 이것은 부모수용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기수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수용해주는 것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청소년 자녀가 자기를 잘 수용하는데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아가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수용이 자기수용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수용은 부모수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인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표 5
부모수용과 자기수용 및 학교적응 간의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수용 → 자기수용	.44 ^{***}	-	.44 ^{***}
자기수용 → 학교적응	.19 ^{**}	-	.19 ^{**}
부모수용 → 학교적응	.42 ^{***}	.08 ^{**}	.50 ^{***}

** $p < .01$. *** $p < .001$.

표 6
매개효과의 95% C.I.와 유의성

	95% C.I.		sig.
	Lower	Upper	
부모수용 → 학교적응	.019	.138	.008

3. 성별에 따른 부모수용과 자기수용 및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형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각 집단의 경로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다음 기저모형과 동일화 제약 모형 사이의 χ^2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두 집단 간 경로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 방법이다(홍세희, 2007; 최인숙, 2012에서 재인용). 형태 동일성 검증, 측정 동일성 검증, 구조 동일성 검증의 세 단계로 다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1) 형태 동일성 검증

부모수용, 자기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남녀 청소년 집단의 자료에 모두 적합한가를 확인하였다. 동일한 모형이 남녀 청소년 집단에 모두 적절해야만 추정치비교가 가능하므로 형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녀 청소년 집단별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이 남녀 두 집단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집단 간 형태 동일성이 만족되었다(표 7 참조).

표 7

남녀 청소년 집단별 연구모형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남	13.56	12	.330	.991	.995	.027
여	15.25	12	.228	.986	.992	.038

2) 측정 동일성과 구조 동일성 검증

남녀 청소년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 동일성 검증에 대한 사전 가정이 측정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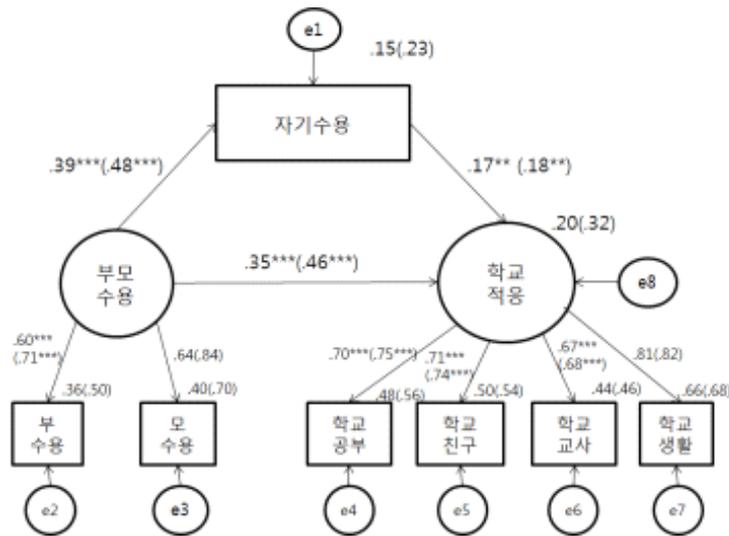
성이므로 집단 간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 검증은 집단별로 같은 수준의 요인부하량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면 집단 간에 교차타당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집단 간의 회귀계수를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에서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고 ($\chi^2(28, N=368)=33.23$, TLI=.989, RMSEA=.023),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로써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어 남자와 여자 집단별로 구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

성별에 따른 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RMSEA	$\Delta\chi^2/\Delta df$
기저모형	28.81	24	.227	.989	.023	
측정 동일성 모형	33.23	28	.227	.989	.023	4.42/4
구조 동일성 모형	40.98	31	.108	.982	.030	7.75/3

구조 동일성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 내의 경로계수 모두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구조 동일성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측정 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χ^2 차이를 통해 집단별로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χ^2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모수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주환 외, 2009). 구조 동일성 검증 결과, χ^2 차이가 7.75($df=3$)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부모수용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자기수용이 매개하는 모형에서 성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p < .001$.

주. 구조계수는 표준화 추정치로 제시하였으며 괄호 안의 값은 여학생 집단에 대한 표준화 계수임.

그림 3. 구조 동일성 모형의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

구조 동일성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구조 동일성 모형에 의하면 각 계수에 있어서 남녀 집단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비표준화 계수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비표준화 계수를 표준화시킬 때는 각 집단내의 표준편차를 이용하므로 표준화된 계수는 달라진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수용이 부모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수용 및 자기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부모수용과 자기수용 및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수용, 자기수용, 학교적응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수용의 경우, 남녀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소년이 부모가 자신을 가치있게 여겨주며 수용해준다고 지각하는 데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지각하는 데 있어 성차가 없었다는 연구들(박영애 외, 2002; 정문자, 여종일, 2010; Plunkett et al., 2007; Rueger, Malecki & Demaray,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욱 통제적으로 대하였지만, 최근 들어 가족관계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을 둔 규범들이 약화되면서 자녀의 성별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녀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과거에는 통제와 훈육, 자녀의 순종이 강조되는 양육행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지지적이고 수평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남녀 청소년의 부모수용에서 성차가 차이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 연구(유안진 외, 2004; 임정화, 전종철, 2012)가 있고, 부모 및 자녀의 성별 조합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후속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부모수용의 차이를 더욱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기수용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자신의 유능함이나 타인의 피드백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수용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에서 남녀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추미래, 이영순, 201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강금주 외, 2012; 박영애 외, 2002;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Gentile et al., 2009; Plunkett et al., 2007)와는 유사한 맥락에 있는 결과이다. 남성은 자아에 대해 여성보다 독립적인 시각을 지니지만 여성의 경우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타인의 관점과 평가를 중요시한다(박현주, 정대용, 2010). 또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능력, 외모, 인기에 민감해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기수용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수용 수준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특히 여학생들이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기수용에서의 성차를 본 선행연구가 드물어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기수용과 자아존중감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더 많은 후속연구를 통해 자기수용에서의 성차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 전체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공부, 학교교사, 학교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업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업에 대한 높은 유능감을 보이며, 교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며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학교친구관련 적응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친구와 상호 협조하는 정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학교적응에 있어 성차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에 따라 성차가 보고된 연구(강금주 외, 2012), 학교적응에는 성차가 없다는 연구(임수경, 이형실, 2007; 임정화, 전종설, 2012) 그리고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성별보다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더 주요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유안진 외, 2004; 임정하, 김정민, 송지은, 나운경, Tan Mei Xin, 2014)도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에 대한 후속연구에서 성별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남녀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부모수용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수용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수용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 청소년 자녀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모교육을 하는 한편,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의사소통 통로를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수용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자기수용의 긍정적인 특성은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부모수용은 자기수용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부모수용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수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와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변해진, 2013)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이렇듯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입증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청소년 개인 내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바로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자녀의 성공에 대한 큰 기대, 헌신적인 희생이다. 부모의 적당한 관심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과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잉간섭을 하거나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수행해 주기도 한다(박영신, 김의철, 2008). 이것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하고, 주변에서 바라는 기준을 맞추어야만 부모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생각을 갖게 하며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도록 한다. 즉, 자기수용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의 성취나 유능함과 관계없이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자기수용의 수준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개인적·사회적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며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수용이 강조된 개입 및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청소년의 자기수용 수준, 나아가 학교적응 수준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서의 남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부모수용이 자기수용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각 변인 간의 경로에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수용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성별의 차이가 없으며, 자기수용의 매개효과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지지가 남녀 청소년의 학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Lam et al., 2012; Rueger et al., 2010), 성별에 따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경로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김소영, 2013),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 모형이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연구(손보영 외, 2012)와 유사한 맥락에 있는 결과이다. 이처럼 연구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통해 학교에 잘 적응하는 데 있어 부모수용과 자기수용이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수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증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인으로 보고 부모수용만을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수용, 교사수용 등 다른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수용의 영향력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본다면 이들의 관계에 대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령에 따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성격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부모수용과 자기수용 및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청소년의 성별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성부모와 이성부모가 주는 영향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주요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는 학교적응에 있어서 부모수용과 자기수용이 갖는 중요성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적 역할을 증명함으로써 각 특성들이 작용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 부모의 수용과 자신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금주, 윤숙영, 신현숙 (2012). 남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학업적 및 사회정서적 변인의 영향. **교육연구**, 35, 1-24.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 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5.
- 고성희, 임성택 (2009).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 과학연구**, 41(1), 45-64.
- 곽미정, 김영미 (201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IT기반 사회의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11(3), 49-57.
- 김경은, 최은희 (2010).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 김계수 (2006). **인과분석 연구방법론**. 서울: 청람.
- 김광웅 (2007).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83-999.
- 김대업 (2008).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파주: 학현사.
- 김명희, 하정희, 차경희 (2006). 중학생들의 학습동기, 다중지능, 학습양식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4(3), 57-79.
- 김복인, 이인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행복과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195-218.
- 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정서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 수용의 중개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사라형선, 조한익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 및 우울, 불안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151-163.
- 김소영 (2013)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다집단 분석을 통한 성별 차이 탐색. **청소년문화포럼**, 35, 92-113.
- 김영춘, 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51-70.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2):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63-109.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153-167.
- 박아청 (2001).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자기의 발달. **사회과학논총**, 20(2), 117-147.
- 박아청 (2008). 한국 청소년의 심리적 행복감에 위협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7(1), 95-121.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의 성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43-60.
- 박현주, 정대용 (2010). 불안정 애착과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성차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381-401.
- 변해진 (2013). **부모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8), 327-333.
- 서은경 (2011). **수퍼바이저의 완벽주의와 개인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 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송희원, 최성열 (2012). 빈곤 여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학업동기, 심리적 안녕감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6(3), 651-672.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이경상, 이순래, 박철현 (2007).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기는, 조유진 (2009). 성인애착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2), 191-204.
- 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통제적 양육행동. **한국인구학**, 31(2), 45-76.
- 이정윤, 최수미 (201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635-650.
- 이주희, 이춘재 (200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과학연구**, 19, 83-117.
- 이현림, 천미숙 (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 연구**, 10(4), 511-541.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169-183.
- 임전옥, 장성숙 (2012).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인간이해**, 33(1), 159-184.
- 임정하, 김경민, 송지은, 나윤경, Tan Mei Xin (2014).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1), 29-57.
- 임정화, 전종실 (2012). 부, 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 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69-190.
- 정문자, 여종일 (2010). 수용적 부모양육이 아동의 사회불안 및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성별조절효과를 통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8(9), 103-111.
- 정옥분 (201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 (2008).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조한익 (2012).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목표지향성, 희망 및

- 학습전략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65-483.
-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최인숙 (2012). 중학생의 부모, 또래 및 교사 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차 검증. **교육과학연구**, 43(3), 105-129.
- 최준석, 류진아 (2012). 성별에 따른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 **상담학연구**, 13(1), 273-290.
- 추미례, 이영순 (2014).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27-43.
- 통계청 (2012). **2012년 사회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rock, D. M., Sarason, I. G., Sanghvi, H., & Gurung, R. A. (1998). The perceived accept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1), 5-2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hamberlain, J. M., & Haaga, D. A. (2001a).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77-189.
- Chamberlain, J. M., & Haaga, D. A. (2001b).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63-176.
- Cotterell, J. L. (1992). The relation of attachments and supports to adolescent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1), 28-42.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5-414.

- Ellis, A. (1977). Psychotherapy and the value of a human being. In A. Ellis, & Grieger (Eds.), *Handbook of rational-emotive therapy*(pp.99-112). New York: Springer.
- Ellis, A., & Harper, R. A. (1997). *A guide to rational living*. North Hollywood, CA: Melvin Powers.
- Ellis, A., & MacLaren, C. (2007).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서수균, 김윤희 역.). 서울: 학지사.
- Gentile, B., Grabe, S., Dolan-Pascoe, B., Twenge, J. M., Wells, B. E., & Maitino, A. (2009). Gender differences in domain-specific self-esteem: A meta-analysi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3*(1), 3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Lam, S. F., Jimerson, S., Kikas, E., Cefai, C., Veiga, F. H., Nelson, B., & Zollneritsch, J. (2012). Do girls and boys perceive themselves as equally engaged in school? The results of an international study from 12 countri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0*(1), 77-94.
- Nota, L., Soresi, S., Ferrari, L., & Wehmeyer, M. L. (2011).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self-determin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2), 245-266.
- Plunkett, S. W., Henry, C. S., Robinson, L. C., Behnke, A., & Falcon III, P. C. (2007).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6), 760-772.
- Rohner, R. P., Khaleque, A., & Cournoyer, D. E. (2005).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methods, cross-cultural evidence, and implications. *Ethos, 33*(3), 299-334.
- Roorda, D. L., Koomen, H. M., Spilt, J. L., & Oort, F. J. (2011). The influence of affective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on students' school engagement and achievement: A meta-analytic approa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1(4), 493-529.

- Rueger, S. Y., Malecki, C. K., & Demaray, M. K. (2010).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sour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Comparisons across gende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 47-61.
- Santrock, J. W. (2012). *Adolescence* (14th ed.). New York: McGraw-Hill.
- Turner, A. P., Sarason, I. G., & Sarason, B. R. (2001). Exploring the link between parental acceptance and young adult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2), 185-199.

ABSTRACT

Parental acceptance in relation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Self-acceptance as a mediating factor

Song, Jieun* · Lim, Jungh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ceptance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s mediated by self-acceptance. Self-report data were collected from 36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SEM and multigroup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level of parental acceptanc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a function of gender. Group mean comparisons showed that the average level of self-acceptance and school adjustment were higher in male students than in female students. Second, parental acceptance had an influence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via self-acceptance. The mediation model was invariant across gender. Findings from this study shows that parental acceptance and self-acceptance are important factors in improving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parental acceptance, self-acceptance, school adjustment

투고일: 2015. 9. 1, 심사일: 2015. 11. 2, 심사완료일: 2015. 11. 9

*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